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성찬식 및 세례식 안내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이은찬 (이성훈, 조유림)
 - 창립 3주년 주일
다음 주 주일예배는 창립 3주년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 친교 후에 구역별 장기자랑이 진행됩니다.
 - 새가족 수료
새가족 1기가 마쳤습니다.
노용면/노신순(플러스링 구역) 전희은(롱아일랜드 구역)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류홍덕 집사님(플러스링 구역)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는 창립 3주년으로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 * 이번 주 수요일예배 후에 10월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10,11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일예배	친 교	안 내
10/28		표하나	류홍덕	한순자
11/04	김유신	강병근	교회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각 교실에서

주일설교요약

제목 : 이유 있는 헌신

본문 : 요한복음 12장 1~8절

기도제목 : 1.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소서
2.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소서
3.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성만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성만찬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도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기념하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념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동물제사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확인하는 것은 지금 제물로 드러진 동물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자신의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1. 또 하나의 기억해야 할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사건도 함께 전하고 기억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헌신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가 3백 데나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이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 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대략 5~6만 불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몸에 부어져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서 답아서 사용할 수 없이 그 날 그 자리에서 다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값나가는 물건이라면, 그냥 예수님께 드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서 다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향유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가롯 유다와 마리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가까이에서 지켜 보았던 가롯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일견 가롯유다의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정말 가롯유다의 말이 맞는 말이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몸은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 중의 하나이지만 그의 마음은 딴 생각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창례를 준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향유는 바로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물건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이것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유다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3.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

나사로 집에서 지금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감사의 마음 그 이상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아시고,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념하라고 (마26장13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찢으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깨어진 향유옥합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드러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사람은 사실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 할 수 있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회복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10,11월 행사안내

- 28일(주일) = 성찬식 및 세례식
- 11월 4일(주일) = 창립 3주년 주일예배(구역 찬양 경연 대회 및 장기자랑)
- 11월 10일(토) = 단체 산행
- 11월 11일(주일) = 구역강사 훈련 모임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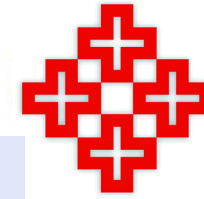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10월 28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 일 예 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사무엘상 강해) 기도: 표하나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16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73번(종교개혁주일)	
찬 송 Hymn	142장	
기 도(Prayer)	최홍만 장로	
세례식	유아세례	
성 경 Scripture	요한복음12장 1~8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사도행전 강해
설 교 Message	이유 있는 헌신	
성찬식 ▲헌 금 Offering	떡과 잔을 나눕니다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 송 Hymn	346장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